

강진군, 심폐소생술경진대회로 안전 재난 의식 높여

재난안전지도사 교육수로 216명 대상

강진군 주민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강진군농촌활성화센터가 강진군의 건강하고 안전한 강진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최근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열어 관내 심정지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으로 사고에 대한 제로화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안전 예방의식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최한 행사로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안전교육원과 세이프캠, 한국야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해 이번 대회는 센터에서 진행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와 적십자사 등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군민 25팀 50여 명이 참여했다. 2인 1조로 팀을 이뤄 가상의 응급 심정지사고 발생자에게 심폐

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를 시연했다.

경연결과 백미경, 이문화 팀이 1위, 김영현, 최은정 팀이 2위, 황미라, 김정선 팀이 3위 수상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응급환자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안전구급가방을 지급해 가정은 물론 이웃 주민들에 대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했다.

운영감 센터장은 “청년 157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며, “심폐소생술은 특정한 기술이 아닌 전 국민의 필수적인 기술이 된 만큼 내년도도 관내 소규모단체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지도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강진군 심정지 사고 제로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 주민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강진군농촌활성화센터가 강진군의 건강하고 안전한 강진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최근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열어 관내 심정지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으로 사고에 대한 제로화에 나섰다. /강진군 제공

무안, 어르신 안전교육 운영

무안군(군수 김산)이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남도안전학당은 농어촌, 지역별, 계층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함양과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안전교육은 보행 안전수칙, 안전운전, 올바른 자동차 방향지시등 이용 등 교통안전과 감염병 예방법, 하임리히법,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환절기 건강관리, 보이스피싱 예방 등 생활안전을 주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이 운영하는 2022년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은 현재 12회에 걸쳐 1천389명의 어르신에게 안전교육을 했으며, 교육은 이달까지 진행 예정이다.

/고민재 기자

함평군,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폐막

함평군은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중앙광장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함평 국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향대전은 총 21만여 명의 입장객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은 7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4억1천만 원) 70% 가량 증가했다.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역대 최고 매출액인 3억8천여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각종 체험 프로그램 및 음식점, 편의점 등 판매액을 합하면 9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올해 국향대전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해 한복, 국향대교, 공룡, 뽀로로, 고래 등 100여점의 조형물과 포토존이 오색 국화로 재탄생돼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축제장에서선 식용 국화 따기, 국화

차 시음, 풀피리 연주체험, 젓소목장 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돼 축제 기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국화 분재 전시관에는 180여점의 국화가 고고한 자태를 한껏 뽐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다육식물관과 환상적인 국화터널이 조성된 자연생태관, 열대 수련이 우거진 수생식물관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 국향대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형형색색의 조명장비가 탑재된 400대의 드론이 함평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낭만과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핑크퐁리와 금빛 역새가 우거진 습지공원에 인디언테트와 보드게임존, 해먹 정자 쉼터를 운영해 관람객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자연속 휴식처를 만들었다.

/이문수 기자

목포시, 평화광장 거리 관광객맞이 단장

목포시가 겨울 관광철을 맞아 평화광장 상가 거리를 감성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시는 지난 4일 평화광장 상가 앞 가로등 150m 구간과 바닷가 인도 가로등 150m 구간에 가랜드 전구를 1차로 설치했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랜드 전구 설치의 지난달 개최한 목포항구축제의 건넌구이터존

에서 감성캠핑장을 연출하며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은 가랜드 LED전구를 평화광장 야간조명으로 임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목포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인 ‘목포해상W쇼’, ‘항구 버스킹’, ‘야간 시티투어’ 등과 연계한 조명이 설치됨에 따라 평화광장의 겨울 밤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

되게 됐다. 이에 따라 평화광장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는 겨울철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목포해상W쇼는 오는 26일 오후 최종 공연을 선보이고, 12월 24일과 31일 특별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상케이블카, 상설 문화예술공연 등 야간 관광컨텐츠를 활용하고 더욱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신안군, 2022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 성료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주최하고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大展)”이 최근 신안국민체육센터(암태면)에서 1천500여 점의 다양한 희귀 자생란들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애란인들이 참여해 530여 점의 자생란엽에

품들이 출품됐으며 32인으로 구성된 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욱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 결과 국무총리상(대상)의 영에는 구미초목지회 진영자씨의 단엽중투 태황이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대전지회 성시만), 산림청장상(대전지회 성시만), 신안군수상

(경기동부 김진태), 전라남도지사상(대구지회 박원재), 국회의원상(경기동부 김진태) 등 157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매년 청정환경의 신안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을 통해 일반인들도 다양한 명품 자생란들을 감상하며 삶의 여유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근 기자

영암군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영암군은 최근 군서면 온천로 원해정마을 입구 버스승강장부터 마을회관에 이르는 약 80m 구간에 영암군자원봉사센터와 두드림봉사단 회원 및 영암군 직원, 초등학교 등 40여 명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우리 마을 사랑과 행복의 벽화그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동심으로 재탄생한 마을을 통해 주민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전하고자 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겼다.

한편 두드림봉사단은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체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마을의 벽화그기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유빈 기자

2代째 이어온 정통방식의 **농산물**

축가네 경성골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